

#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usehold Labor Time of Married Men by Generation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김주희\*\*\*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hyunah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ecture Kim, Joohee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영향 요인을 세대별로 파악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혼남성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가사노동참여 요인을 가사노동참여가설을 적용시켜 분석해 보았다. 자료는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과 성역할태도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가설, 시간가용성가설, 요구반응가능성가설 모두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였다. 반면,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가용성가설과 요구반응가능성가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였다. 세대별로 가사노동참여의 동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남성 대상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수립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주제어:**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기혼남성,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참여가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married men's household labor time by generation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male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To this end, married men were classified into Baby Boomers,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and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for each generation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hypothesis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As for the data, the original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9 Time Use Survey" were use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men's household labor time. As a result

\*본 연구는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주저자: 이현아(leehyunah@mail.knou.ac.kr), <https://orcid.org/0000-0001-7835-3322>

\*\*\*교신저자: 김주희(heeya214@snu.ac.kr), <https://orcid.org/0000-0002-4587-0582>

of the analysis, household labor time for Baby Boomers can be explained by the hypothesis of economic efficiency, gender role attitude, and the demand/response capability, while household labor time for Generation X can be explained by economic efficiency hypothesis, gender role attitude hypothesis, time-availability hypothesis, and demand/response capability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household labor time for Generation Y can be explained by the time-availability hypothesis and demand/response capability hypothesis. The fact that each generation has different factors of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ene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policies to support the work and family balance for men.

**Key words:** Baby Boom generation, Generation X, Generation Y, Married Men, Household Labor Time, The Hypothesis of Participating in Household Labor

## I. 서론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고정관념은 공사영역 이분법에서 출발한 것이다. 산업화 이후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가사노동과 대비되는 시장노동,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이분법(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가정은 특정한 형태의 성별 분업, 즉 남성은 시장노동을 전문으로 하고 여성은 무급 돌봄 및 가사일을 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로 특징지어져 왔다(Crompton, 2001).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을 보면, 아직까지도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이 우세해 보인다.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 평균시간은 1999년 30분, 2004년 31분, 2009년 35분, 2014년 39분, 2019년 48분으로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성의 평균시간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조한 수준이다(통계청, 각년도). 이는 남성은 공적 영역인 사회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돌봄을 책임지는 이분화된 성역할모델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하지만 성역할모델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맞벌이모델로 변화하면서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조사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남자는 66.2%, 여자는 79.2%가 반대하고 있고, 이는 5년 전인 2014년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8.5%p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와 연령별로 30대에서 남녀 성별 역할 고정관점에 반대하는 비율의 증가가 각각 14.4%p와 13.2%p로 높았다(통계청, 2020).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모델에 반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으로 맞벌이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족의 대응방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따라 협조적 적응모형,

이중노동부담모형, 지체된 적응모형의 3가지 형태로 가사분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협조적으로 적응해가는 협조적 적응모형이 있는가 하면, 여성이 취업하더라도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이중노동 부담모형도 있다. 한편 남성들이 기존의 성역할 관념에 묶여 행위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 지체된 적응모형도 있다. 우리나라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중노동부담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김진욱, 2005).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체된 적응모형의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무엇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세대별 차이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부머와 달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인 아내나 남편의 역할을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고 가사노동시간을 최소화하여 자기시간을 갖고자 한다(매일경제, 2019; 중앙일보, 2019). 세대별 차이 뿐 아니라 실제 가사노동분담은 개별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사노동분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사노동참여가설을 검증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대표적인 가설로는 경제적 효율성 가설, 성역할태도설,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 시간가용성 가설의 4가지가 있는데,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기수, 2009; 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이현아·김선미·이승미, 2016; 김진욱·권진, 2017; 허수연·김한성, 2019)은 세대구분 없이 가사노동참여가설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 추세에 주목하고,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요인을 세대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대구분은 선행연구를 토대(김우성·허은정, 2007; 김선우, 2013; 이혜정·유규창, 2013; 권정윤·김난도, 2019; 이현아, 2021)로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

였고, 각 세대별로 어떤 가설이 적용되는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가사노동참여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대상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세대별로 차별화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세대구분과 세대별 특성

세대에 대한 정의는 친족 가계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 즉 출생집단, 동일한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허석재, 2015).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즉, 동일시기에 출생한 개인들이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물학적 동질성 외에 역사적 동질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한 '세대'로서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박시내·심규호, 2010). 동일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으로 인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박재홍,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세대별 특성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베이비붐세대는 1954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 집단으로 6.25전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나 유신시대와 광주민주화운동,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육에서의 과밀화를 경험한 세대이며, X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출생 집단으로 6.29 민주화를 경험하고 산업화 수혜 세대로서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다(김우성·허은정, 2007).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에코 부머스(Echo Boomers)', 밀레니엄 세대, 혹은 디지털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자들을 일컬으며, X세대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Y라고 불린다.

세대별 특징을 보면, 먼저 베이비붐세대는 대체적으로 인정, 전통, 보편주의 등의 일반적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소비나 성취에 대한 가치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이수연 외, 2017).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사회적 과급효과에 대한 전망으로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통계청, 2010a)을 보면 '나는 없고 가족만 있는 베이비부머'의 고단함을 읽을 수 있다(중앙일보, 2010).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

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동력 세대로 현재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하여 불안한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되는 세대이다(통계청, 2010b). 또한 시장에서는 건강, 자산, 적극적 소비의욕을 가진 새로운 소비계층인 '뉴시니어'로 분석하기도 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반면,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개인적 상징 지향을 중시하지만(김선우, 2013), 도덕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나 환경보호가 중요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수연 외, 2017)이다. X세대는 자녀교육과 부모부양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생애주기를 겪으면서도 개인유지와 같은 즐거움과 개인을 위한 지출을 포기하지 않는 소비지출 양상을 보인다(이은희 외, 2015). 제일기획의 리포트에서 X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정의하였다(매일경제, 2015). X세대가 40대에 들어서는 시점에 '영포티(Young Forty)'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충분한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추고 변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중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X세대는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새로운 중년으로 '뉴노멀 중년'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Y세대는 민주화가 정착된 가운데 성장하여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며, 경제적으로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에 관심을 가지며, 국제화, 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을 경험하였다. 특히, 10대에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경험을 빠르게 습득한 세대이다.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면서도 물질적 성취에 대한 가치는 높은 편이다(이수연 외, 2017). 밀레니얼세대라고도 불리는 Y세대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표현욕구가 강하며, 저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부모세대인 베이비붐세대나 이전세대인 X세대보다 소득이 적고, 저성장과 함께 사회진출시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한 세대이다(서울연구원, 2019).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6)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들의 특성은 행복과 성공 기준이 '나'에게 있고, 집단의식이 약하고, 불안감이 높고, 일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족은 부모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보이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인 아내, 남편의 역할이나 절대적인 희생은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고, 집안일에 쫓던 시간을 아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여유를 즐긴다(중앙일보, 2019). 밀레니얼 세대 가족은 가사노동의 최소화를 위해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새로운 가전 제품을 이용하고, 가정 간편식을 이용한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며, 부부는 동반자

라는 의식이 강하고, 개인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특징으로 한다(매일경제, 2019).

## 2. 가사노동참여 가설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하는 이론 및 가설은 크게 4가지-성역할태도가설, 경제적 효율성 가설, 시간가용성 가설,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 있다. 우선, 성역할태도 가설(the gender-role attitude hypothesis)은 가족 내에서 성과 관련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가설이다. 연구에 따라서는 성역할관념가설(gender-role ideology hypothesis)으로도 불리는데, 여성이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남성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등 남녀의 역할이 변하고 있지만, 성에 따른 역할규범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성역할 태도는 보통 ‘공사영역 이분법(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에 근거하여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로 구분된 전형적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주관적 지지정도로 측정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비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가사와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성역할 태도 가설에 의하면, 이러한 성역할 태도가 실제 성역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Coverman, 1985)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이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에게 비해 가사노동 및 육아에 참여시간이 낮을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태도를 ‘전통적’과 ‘근대적’으로 나누어 성역할태도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 가설(the economic efficiency hypothesis)은 베커(Becker, 1965)가 시간을 경제이론에 도입하면서 가계가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데서 시작한 이론이다. 가계의 효용은 시장재, 가정재, 여가시간으로부터 발생하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약된 시간자원을 각각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시간에 할당한다는 것이다(Bryant & Zick, 2006). 여기서 시장노동의 경제적 효율성은 임금률을 의미하며, 가계의 시간배분은 임금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가정 내에서의 노동보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여성이 무급노동인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가계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개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시간 가용성(the time availability hypothesis) 가설은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시간이 많은 배우자가 더 많은 가사노동

을 분담하게 된다고 보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에 사용가능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Stafford et al., 1977; Permcii et al., 1978; Coverman, 1985에서 재인용).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을 기본 전제로 한 가설로, 시장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면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지고 반대로 유급노동시간이 짧으면 가사노동에 사용가능한 시간이 길어져 가사참여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가설은 시장노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남편에 비해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부인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즉, 남편은 가정 밖에서 시장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므로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사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이 적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시장노동시간이 더 긴 남편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이 적은 부인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남편과 부인의 가용한 시간에 따른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이 증가해도 여전히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고, 자녀양육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설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주40시간 이하/주40시간 초과)과 근무형태(주5일제/기타)를 통해서 시간가용성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넷째, 요구반응가능성 가설(the demand/response capability hypothesis)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사용가능한 시간의 양과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Coverman, 1985). 연구에 따라서는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로 명명되기도 한다(김외숙·이기영, 2002). 이 가설은 커버만(Coverman, 1985)이 시간가용성 가설이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만 의미 있는 설명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시간가용성 가설에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추가시킨 가설이다. 만일, 남성이 시간간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다면(배우자나 다른 가족구성원, 고용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등), 가사노동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간가용성가설의 결함을 보완하는 가설이 바로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이다. 가정에서 일정량의 가사 및 육아를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는 부인에게 이러한 작업이 할당되는데, 부인의 취업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남편은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도록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 참여 요구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남편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남편의 수입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의 또 다른 지표가 되는데, 즉, 수입은 소위 "노동 질약 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남편의 능력이나 가사일에 대한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반영할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가사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의 함수라 할 수 있다. 요구는 자녀수와 배우자의 고용 상태에 따라 반영된다. 반응 가능성 지표에는 유급 근로 시

간과 소득 수준이 포함된다. 이상적으로는 남성의 고용 상황을 특징짓는 유연성 측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시장노동시간에 따라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와 반응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여부와 10세미만 자녀 유무를 통해서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3.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을 가정관리시간과 자녀양육시간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및 참여에 대해 연구하거나(유소이·최윤지 2002; 허수연, 2008; 이승미·이현아, 2011; 이창순, 2014; 이현아 외, 2016, 김진옥·권진 2017; 허수연·김한성, 2019), 또는 남성의 가사노동을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남성의 자녀양육시간 및 참여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송유진, 2011; 안수미 외, 2013, 윤성호, 2020)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맞벌이여부, 미취학자녀여부, 유급노동시간, 성역할태도 등이 보고되고 있다.

우선 연령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에서 연령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연령의 방향성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승미와 이현아(2011)의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창순(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가사노동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소이와 최윤지(2002)에서는 연령이 남성의 가정관리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육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도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평일과 토요일의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며(이승미·이현아, 2011), 고졸이하에 비해 4년제 대졸이상일 경우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수연·김한성, 2019). 또한 조미라와 윤수경(201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에서의 차이도 제시하였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은 집안일시간의 증가폭이 큰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은 자녀양육시간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는 연구도 있다(채로·이기영, 2004; 손문금, 2005).

소득수준 역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와 관련된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요일 및 가사노동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진옥과 권진(201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말 가사노동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아 외(2016)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주중 및 주말 가정관리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는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도 있다(허수연, 2008; 채로·이기영, 2004).

맞벌이 여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진옥과 권진(2017)의 연구에서 맞벌이 여부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허수연(2008)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현아 외(2016)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여부가 아버지의 주중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유무는 가정 내 요구와 관련된 변수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미취학자녀 여부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중 특히, 자녀돌봄시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어린자녀가 있을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소이와 최윤지(2002)의 연구에서 어린자녀가 남성의 가정관리시간보다 육아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안수미 외, 2013; 김진옥·권진, 2017)에서도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은 어린자녀가 있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05; 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유급노동시간은 한 영역의 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영역의 시간이 감소하는 제로섬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간으로,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허수연(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은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남성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허수연과 김한성(2019)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총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여 부부의 상대적인 가사분담 수준을 나타내는 가사노동분담률도 수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태도는 가정 내에서 본인의 성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가정 내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 허수연(2008)의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진옥과 권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 인식은 2004년에 무급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력도 보이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 모두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은기수(2009)의 연구에서 한국의 기혼 부부의 가사노동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에 성역할 태도 변수만을 추가했을 때 성역할 태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자녀유무, 유급노동시간(주 40시간여부, 주5일제), 성역할태도를 선정하고, 이를 가사노동 참여가설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연령과 교육수준은 기본적 통제변수로 하고, 성역할태도는 성역할태도 가설, 소득수준은 경제적 효율성 가설, 주40시간여부와 주5일제여부는 시간가용성 가설, 맞벌이여부와 10세미만 자녀유무는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을 검증하는 변수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사노동참여가설에 따른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가사노동참여가설에 따른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가사노동참여가설에 따라 검증해보고자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개인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시간활용 형태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 조사는 5년 주기로, 1999년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2019년도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개인 및 가구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10분 단위로 2일 동안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이다. 응답자가 기입하는 자신이 한 행동은 주 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조사된다.

연구대상은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기혼남성이다. 각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출생년도를 베이비붐세대는 1954-1964년생, X세대는 1965-1979년생, Y세대는 1980-1995년생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출생년도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2019년도에서 만나이를 빼서 태어난 년도를 추정하여 세대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비농가이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과 배우자가 있다고 한 응답자를 추출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조사가 되어 있으나, 사람들의 직업형태에 따른 다양한 생활시간구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당일 경제활동을 한 사람만을 추출하였다. 비농가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맞벌이외벌이 항목에서 비동거, 여자만 취업, 둘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부부가 동거를 하면서 맞벌이 또는 남자만 취업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동거를 하지 않거나, 여자만 취업하였거나, 둘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세대이더라도 생활시간구조가 다르고 특히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베이비붐세대 2516개, X세대 4571개, Y세대 2110개로, 주 행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6.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별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각 세대별로 가사노동참여가설에 따른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먼저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세대별 가사노동 행위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0’분인 집단, 평균미만인 집단, 평균이상인 집단으로 나누고, 가사노동시간이 ‘0’분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를 재구성하여 구성하였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대분류인 가정관리와 가정관리 관련이동을 합하여 가정관리시간으로 재구성하고, 대분류인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와 중분류인 가족 및 가구원 관련 돌보기 관련이동을 합하여 돌봄시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재구성된 시간

을 보면,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구입, 기타가정관리, 가정관리 관련이동으로 구성하였다. 돌봄은 만10세 미만 아이돌보기, 만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만 10세미만 아이돌보기 관련 이동, 만10세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관련 이동,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관련 이동,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관련 이동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참여가설 검증에 위한 요인으로 성역할태도, 소득수준, 주 40시간 여부, 주 5일제 여부, 맞벌이 여부, 10세 미만 자녀 여부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항목 중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을 성역할태도로, 월평균 소득을 물어보는 항목을 소득수준으로,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물어보는 항목을 주 40시간여부로, 직장의 정기 휴일을 물어보는 항목을 주 5일제 여부로, 맞벌이 및 동거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을 맞벌이 여부로, 10세 미만 자녀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을 10세 미만 자녀 여부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연령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나눈 결과 베이비붐세대 50대~60대, X세대 40대~50대, Y세대 20~30대로 구성되어 있다. Y세대에서 30대가 90%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배우자가 있는 집단을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고졸이하가 가장 많고, X세대와 Y세대는 대졸이 가장 많았다. 개인소득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각 소득구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X세대는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Y세대는 2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각 소득구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맞벌이여부는 모든 세대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비맞벌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X세대 맞벌이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다. 10세미만 자녀유무는 Y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여부는 모든 세대에서 주40시간 초과가 주 40시간 이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5일제여부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주5일제가 아닌 기타의 비율이 높았으나, X세대와 Y세대는 주5일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는 모든 세대에서 근대적 집단이 전통적 집단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Y세대의 근대적 집단 비율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베이비붐세대(n=2516)		X세대(n=4571)		Y세대(n=2110)	
연령	50-59세	1346(53.5)	40-49세	3125(68.4)	20-29세	178(8.4)
	60세이상	1170(46.5)	50-59세	1446(31.6)	30-39세	1932(91.6)
교육 수준	중졸이하	464(18.4)	중졸이하	76(1.7)	중졸이하	10(0.5)
	고졸이하	1098(43.6)	고졸이하	1410(30.8)	고졸이하	326(15.5)
	대졸이하	760(30.2)	대졸이하	2557(55.9)	대졸이하	1598(75.7)
	대학원이상	194(7.7)	대학원이상	528(11.6)	대학원이상	176(8.3)
개인 소득	200만원미만	670(26.6)	200만원미만	341(7.5)	200만원미만	136(6.4)
	200-300만원미만	740(29.4)	200-300만원미만	990(21.7)	200-300만원미만	694(32.9)
	300-400만원미만	510(20.3)	300-400만원미만	1178(25.8)	300-400만원미만	664(31.5)
	400만원이상	596(23.7)	400만원이상	2062(45.1)	400만원이상	616(2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14(56.2)	맞벌이	2813(61.5)	맞벌이	1096(51.9)
	비맞벌이	1102(43.8)	비맞벌이	1758(38.5)	비맞벌이	1014(48.1)
10세미만 자녀여부	10세미만자녀유	66(2.6)	10세미만자녀유	1468(32.1)	10세미만자녀유	1620(76.8)
	10세미만자녀무	2450(97.4)	10세미만자녀무	3103(67.9)	10세미만자녀무	490(23.2)
주 40시간 여부	주40시간이하	1086(43.2)	주40시간이하	1737(38.0)	주40시간이하	702(33.3)
	주40시간초과	1430(56.8)	주40시간초과	2834(62.0)	주40시간초과	1408(66.7)
주 5일제 여부	주5일제	1064(42.3)	주5일제	2550(55.8)	주5일제	1292(61.2)
	기타	1452(57.7)	기타	2021(44.2)	기타	818(38.8)
성역할 태도	전통적	1184(47.1)	전통적	1690(37.0)	전통적	542(25.7)
	근대적	1332(52.9)	근대적	2881(63.0)	근대적	1568(74.3)

## IV. 연구결과

### 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 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기혼남성의 하루 24시간 생활 시간배분을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개인유지와 일(유급노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봉사 및 여가와 가사노동시간은 세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봉사 및 여가는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았으나, 가사노동시간은 Y세대가 104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66분), 베이비붐세대(44분) 순으로 나타났다. Y세대는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가사노동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세 집단의 행위자평균과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의 행위자비율은 54.7%로 베이비붐세대의 절반정도가 하루 1분이상의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은 80분이다. X세대의 행위자비율은 베이비붐세대보다 높은 64.9%이며, 행위자평균 시간은 102분이다. Y세대의 행위자비율은 78.1%로 Y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하루 1분 이상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시간은 133분이다. 다음으로 가정관리시간의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은 세대별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에서

는 Y세대의 행위자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시간도 Y세대가 70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 2. 가사노동참여가설에 따른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 1) 성역할태도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성역할태도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성역할태도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모든 세대에서 근대적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전통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보다 길게 나타났다. 하위행동별로 보면 X세대는 가정관리와 돌봄시간 모두에서 근대적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전통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한편 베이비붐세대와 Y세대는 가정관리시간에서만 근대적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전통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돌봄시간에서는 성역할태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 2)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소득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아래 <표 5>와 같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베이비붐

<표 2>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생활시간배분

생활시간	세대	베이비붐세대(n=2516)		X세대(n=4571)		Y세대(n=211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유지		694	117	701	131	696	128
일		397	258	399	270	413	271
학습		2	23	5	36	4	27
가사노동		44	72	66	96	104	121
	가정관리	38	66	45	74	50	74
	돌봄	6	24	21	51	54	81
봉사 및 여가		303	188	269	174	223	154

<표 3>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가사노동	세대	베이비붐세대(n=2516)		X세대(n=4571)		Y세대(n=2110)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가사노동		54.7	80	64.9	102	78.1	133
	가정관리	51.1	70	54	69	58.4	64
	돌봄	9.3	10	29.9	32	56.1	70

〈표 4〉 성역할태도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전통적 (n=1184)	근대적(n=1332)	t	
성역할태도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사노동	37	50	-4.321***
		가정관리	33	43	-4.166***
		돌봄	5	6	-1.526
	X세대 (n=4571)	가사노동	56	72	-5.776***
		가정관리	38	49	-5.195***
		돌봄	18	23	-3.197**
	Y세대 (n=2110)	가사노동	92	108	-2.683**
		가정관리	40	53	-3.800***
		돌봄	52	55	-.715

\*p<.05, \*\*p<.01, \*\*\*p<.001

〈표 5〉 소득수준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n=670)	200-300만원미만 (n=740)	300-400만원미만 (n=510)	400만원이상 (n=596)	F	
소득수준	베이비붐세대 (n=2516)	생활시간						
		가사노동		50 a	41 a	45 a	40 a	2.382
		가정관리		44 a	35 a	40 a	35 a	2.822 <sup>†</sup>
		돌봄		6 a	6 a	5 a	6 a	.437
	X세대 (n=4571)	생활시간						
		가사노동		66 a	63 a	69 a	66 a	.787
		가정관리		52 a	43 a	45 a	44 a	1.322
		돌봄		14 a	19 ab	24 b	21 b	3.767 <sup>†</sup>
	Y세대 (n=2110)	생활시간						
		가사노동		116 b	90 a	108 ab	112 ab	4.924**
		가정관리		53 a	47 a	49 a	53 a	.836
		돌봄		63 b	43 a	59 ab	60 ab	6.610***

\*p<.05, \*\*p<.01, \*\*\*p<.001

세대에서는 가정관리시간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지만 scheffe 사후검정으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X세대와 Y세대에서는 돌봄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소득구간에 따라서 일관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 3) 시간가용성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시간가용성은 주40시간 근무 여부, 주5일제 여부를 통해 살펴 보았다. 〈표 6〉을 보면, 주40시간 근무여부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모든 세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세대에서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40시간 초과로 일하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보다 많았다. 이는 근무시간이 적으면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5일제 여부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도 모든 세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5일제로 근무하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기타 집단의 가사노동시간 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40시간여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요구반응가능성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요구반응가능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맞벌이여부와 10세미만 자녀 여부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7〉을 보면,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세대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가정관리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인 경우 비맞벌이보다 가정관리시간이 길었다. 반면 Y세대는 돌봄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에 따른 예상과 달리 비맞벌이인 경우의 기혼남성이 맞벌이인 경우보다 돌봄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났다. 한편 10세미만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세대에서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Y세대는 돌봄시간 뿐 아니라 가정관리시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시간가용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단위: 분)

주 40시간 근무 여부	세대	가사노동	40시간이하(n=1086)	40시간초과(n=1430)	t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사노동	53
주 5일제 여부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정관리	47	32	-5.389***
		돌봄	6	5	-1.544
	X세대 (n=4571)	가사노동	75	60	-4.984***
		가정관리	53	40	-5.532***
		돌봄	22	20	-1.282
	Y세대 (n=2110)	가사노동	114	99	-2.612**
		가정관리	53	48	-1.624
		돌봄	60	51	-2.361*
주 5일제 여부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사노동	51	39	-3.894***
		가정관리	44	34	-3.853***
		돌봄	6	5	-1.092
	X세대 (n=4571)	가사노동	73	58	-5.420***
		가정관리	50	38	-5.455***
		돌봄	22	19	-2.234*
	Y세대 (n=2110)	가사노동	109	96	-2.535*
		가정관리	53	44	-2.834**
		돌봄	56	52	-1.252

\*p<.05, \*\*p<.01, \*\*\*p<.001

〈표 7〉 요구반응가능성에 따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맞벌이 여부	세대	가사노동	맞벌이 (n=1414)	비맞벌이(n=1102)	t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사노동	46
10세 미만 자녀 유무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정관리	41	35	-2.260*
		돌봄	5	6	.458
	X세대 (n=4571)	가사노동	68	62	-2.017*
		가정관리	48	40	-4.017***
		돌봄	20	23	1.915
	Y세대 (n=2110)	가사노동	101	107	1.145
		가정관리	52	48	-1.229
		돌봄	50	60	2.847**
10세 미만 자녀 유무	베이비붐세대 (n=2516)	가사노동	72	43	-2.747**
		가정관리	32	38	.768
		돌봄	39	5	-5.234***
	X세대 (n=4571)	가사노동	94	53	-12.089***
		가정관리	47	44	-1.184
		돌봄	47	9	-19.324***
	Y세대 (n=2110)	가사노동	116	63	-11.178***
		가정관리	47	57	2.681**
		돌봄	69	5	-26.956***

\*p<.05, \*\*p<.01, \*\*\*p<.001

〈표 8〉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n=2561)	80분미만		80분이상	
	B	Exp(B)	B	Exp(B)
절편	.478		-2.978*	
만나이(연속변수)	-.021	.979	.016	1.016
교육수준				
중졸이하	-.157	.855	-.022	.978
(기준: 대졸이하)	.242*	1.274	.401**	1.493
고졸이하)				
대학원이상	.068	1.070	.358	1.430
개인소득				
200-300	-.181	.834	-.427**	.653
(기준: 만원미만)				
300-400	-.238	.788	-.368*	.692
(기준: 200만원미만)				
400	-.359*	.699	-.654***	.520
(기준: 만원이상)				
맞벌이 여부				
(기준: 비맞벌이)	.285**	1.330	.279*	1.321
10세미만자녀유무				
(기준: 자녀없음)	.867**	2.379	1.402***	4.064
주40시간여부				
(기준: 40시간초과)	.134	1.143	.485***	1.624
주5일제여부				
(기준: 기타)	-.064	.938	.216	1.241
성역할태도(연속변수)	.166**	1.180	.346***	1.413
-2Log우도		3645.117		
X <sup>2</sup>		136.202***		

\*p<.05, \*\*p<.01, \*\*\*p<.001

참조변수 : 가사노동시간 '0'분 집단

### 3.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자녀유무, 근무시간, 성역할태도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대졸이하인 경우,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가사노동을 평균미만 또는 평균이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기준집단(200만원미만)보다 높은 경우, 가사노동에 평균이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낮았다.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사노동을 평균이하로 참여할 가능성도 낮았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평균이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특히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인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맞벌이인 경우,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무시간 주40시간여부에 따라서는 주40시간 이하인

집단이 평균 이상의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역할태도도 근대적일수록 '0'분인 집단에 비해 평균미만 또는 평균이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댓값(Exp.)을 비교해보면, 10세미만자녀가 있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10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전혀 안하는 '0'분 집단에 비해 평균이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4.06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이 요구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2)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X세대의 경우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참여시간도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기준집단(200만원미만)과 비교할 때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사노동을 평균이하 또는 평균이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맞벌이인 경우,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표 9〉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X세대 (n=4571)	102분미만		102분이상	
	B	Exp(B)	B	Exp(B)
절편	.680		.588	
만나이(연속변수)	-.028**	.973	-.058***	.944
교육수준				
중졸이하	.067	1.069	.396	1.486
(기준: 대졸이하)	.145	1.156	.260*	1.297
고졸이하)				
대학원이상	.347**	1.415	.606***	1.834
개인소득				
200-300	-.283	.754	-.343	.709
만원미만				
(기준: 300-400)	-.331*	.718	-.403*	.669
200만원미만)				
400	-.459**	.632	-.525**	.591
만원이상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270***	1.310	.344***	1.411
10세미만자녀유무				
(기준변수:자녀있음)	.520***	1.682	.894***	2.445
주40시간여부				
(기준:40시간초과)	.190*	1.209	.352***	1.422
주5일제여부				
(기준:기타)	.188*	1.207	.305**	1.357
성역할태도(연속변수)	.217***	1.242	.374***	1.454
-2Log우도		6352.028		
X <sup>2</sup>		374.023***		

\*p<.05, \*\*p<.01, \*\*\*p<.001

참조범주 : 가사노동시간 '0'분 집단

〈표 10〉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Y세대 (n=2110)	133분미만		133분이상	
	B	Exp(B)	B	Exp(B)
절편	1.267		.549	
만나이(연속변수)	-.043*	.957	-.077***	.926
교육수준				
중졸이하	.825	2.282	.681	1.975
(기준: 대졸이하)	.317*	1.373	.348	1.416
고졸이하)				
대학원이상	.380	1.462	.874**	2.397
개인소득				
200-300	-.176	.838	-.378	.685
만원미만				
(기준: 300-400)	-.204	.816	-.196	.822
200만원미만)				
400	-.368	.692	-.266	.766
만원이상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278*	1.320	.216	1.241
10세미만자녀유무				
(기준변수:자녀있음)	.786***	2.194	1.627***	5.089
주40시간여부				
(기준:40시간초과)	.277*	1.319	.481**	1.618
주5일제여부				
(기준:기타)	-.086	.917	.023	1.024
성역할태도(연속변수)	.102	1.107	.268**	1.307
-2Log우도		2951.377		
X <sup>2</sup>		155.185***		

\*p<.05, \*\*p<.01, \*\*\*p<.001

참조범주 : 가사노동시간 '0'분 집단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무시간 주40시간여부의 경우, 주40시간이하인 집단은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5일제근무여부에 따라서도 주5일근무제인 경우 가사노동을 전혀 안하는 '0'분인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평균 미만 또는 평균 이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일수록 '0'분인 집단에 비해 평균미만 또는 평균이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 3)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만나이, 교육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 자녀유무, 근무시간,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대졸이하인 경우 고졸이하에 비해 가사노동에 평균이하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대학원 이상은 고졸이하보다 평균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와 달리 Y세대에서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맞벌이여부는 평균미만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인 경우 비맞벌인 경우 보다 평균미만의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맞벌이여부가 평균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10세미만 자녀유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Y세대 기혼남성이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 보다 평균미만과 평균이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하인 집단의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참여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5일제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시간이 평균이상인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평균이상의 가사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댓값(Exp.)을 비교해보면, 10세미만자녀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10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전혀 안하는 '0'분 집단에 비해 평균이상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5.089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이 요구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논의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가

사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세대별(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세대별 영향 요인을 가사노동참여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선,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행위자비용, 행위자평균을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행위자비용은 54.7%, 행위자평균시간은 80분, X세대의 행위자비용은 64.9%, 행위자평균시간은 102분, Y세대의 행위자비용은 78.1%, 행위자평균시간은 133분이다. 행위자비용과 행위자평균이 Y세대 > X세대 >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을 가정관리시간과 돌봄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가정관리시간의 행위자비용 행위자평균시간은 세대로 비슷하지만 돌봄에서는 Y세대의 행위자비용과 평균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 베이비붐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Y세대는 56%가 돌봄에 참여하고 그 평균시간은 70분에 달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행위자비용과 행위자평균시간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높고, 특히 돌봄을 중심으로 남성의 참여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불고 있는 '아빠열풍'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자녀돌봄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가사노동참여가설을 근거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교육수준, 소득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 자녀유무, 주당 근무시간(평균이상 집단만),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X세대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 자녀유무, 근무시간, 주5일근무제,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Y세대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여부, 10세미만 자녀유무, 근무시간,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세대로 영향요인과 영향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가사노동참여가설에 근거해 분석해보면 확연한 세대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베이비붐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가설,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기혼남성의 개인소득이 높고,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비맞벌이에 10세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0'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다음으로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가설,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 시간가용성 가설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기혼남성 개인소득이 높고,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비맞벌이인 경우, 10세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고, 근무형태가 주5일제가 아닌 경우,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0'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가설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이는 베이비

붐세대와 X세대 경우 가정 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 내 역할의 분담은 성역할태도가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역할태도에 의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설명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김진욱·권진, 2017; 허수연·김한성, 2019)와 일치하는 것으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 기혼남성은 Y세대와는 다르게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세대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는 달리 시간가용성 가설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계약이론이 기혼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은기수,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하는데 가용한 시간자원의 여부도 다른 요인들과 함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요구반응가능성 가설과 시간가용성 가설에 의해 설명된다. 10세 미만 자녀가 있고, 주40시간제 근무인 경우,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앞서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기혼남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혼남성의 개인 소득이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와 달리 Y세대에서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적 효율성 가설이 Y세대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Y세대 기혼남성에게 가장 큰 영향변수는 10세미만 자녀유무로 10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많아지는데 특히 평균이상으로 많이 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았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남성들의 경우 다른 남성들의 비해 직접적인 돌봄의 요구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이다(김진욱·권진, 2017). 즉, Y세대 기혼남성에게 10세미만 자녀는 가사노동참여를 요구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요구반응가능성 가설의 또 다른 척도인 맞벌이여부가 평균이상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세대에게 있어 맞벌이상황이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 요인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가사분담을 당연시하는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으로 이해된다. 근무시간 조건에 의해서도 주40시간이하인 집단의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집단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가용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역할태도는 평균이상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세대 기혼남성에게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가사노동참여는 성역할태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Y세대 남성들에게 가사노동 참여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반영해준다.

이상 세대별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사노동참여가설에 적용시켜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나는 없고 가족만 있는 베이비부머' 기혼남

성에게 아버지역할은 가사노동참여보다는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부양자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의 성역할분담을 이루면서 가족단위의 효율과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X세대 기혼남성들은 이전 세대보다는 개인주의 지향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졌지만, 현재 X세대는 생애단계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개인주의 성향'은 '가정 지향'으로 표출되면서,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도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X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경제적 효율성과 성역할태도, 요구반응가능성, 시간가용성의 모든 가설로 설명가능한 것이라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Y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과 성역할태도가 유효한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Y세대 기혼남성은 어린 자녀가 있어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또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가용한 시간이 있을 때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밀레니얼세대라고도 불리는 Y세대는 부모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보이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전통적인 아내, 남편의 역할이나 절대적인 희생은 거부하고, 동반자적 의식을 가지고 가사에 대한 요구가 있고 가용한 시간이 있으면, 가사에 참여한다는 태도가 실제 Y세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나누어 비교해본 것으로, 향후 남성 대상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남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센터를 통해 아버지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세대별로 다른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차별화된 남성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Y세대 아버지들은 성역할태도나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시간가용성이나 요구반응성 관점에서 가사노동과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아버지프로그램의 기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정의 요구가 있고 또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가사노동과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Y세대 아버지의 가사노동참여 방식이라 할 때, 아버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실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사노동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남성대상 가사노동참여 연구는 남성을 단순히 여성과 대비된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남성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차이와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남성의 변화는 지체된 적응모형의 형태이지만, 무엇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커지는 추세는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남성을 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가사노동참여 요인을 가사노동참여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대별 차별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참여가설 검증에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변수를 중심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0세미만 자녀 뿐 아니라 노부모나 환자 등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의 차이를 가사노동시간을 통한 양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남성의 세대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가사노동참여가설을 설명하는 요인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 부부간 상대적 소득의 크기, 부부간 소통과 권력관계, 자녀의 구성, 가족 이외 자원 활용, 10세미만 자녀 돌봄 뿐 아니라 노부모나 환자 돌봄 등 보다 다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참여가설을 보다 입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함께 고려한 가족단위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권정윤 · 김난도(2019). 소비자학 분야에서의 세대의 개념, 범주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0(5), 77-99.
- 2) 김선우(2013). 한국, 미국, 스웨덴의 소비문화 비교-성별,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4(3), 183-210.
- 3) 김우성 · 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4) 김외숙 · 이기영(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5) 김진옥 · 권진(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81-215.
- 6) 김진옥(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 연구: 가사노동부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7) 매일경제(2019.4.4). 밀레니얼 세대의 가족 새로운 가족의 탄생.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05518>.
- 8) 매일경제(2015.1.8). 다시 돌아온 X세대...우리 40대가 달라졌어요.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5/01/24173>.
- 9) 박시내 · 심규호(2010). 베이비붐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청.
- 10)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11) 삼성경제연구소(2011). 뉴시니어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 노트 96호.
- 12) 서울연구원(2019.12). 월간 서울 동향 리포트 2019년 12월호. [https://data.si.re.kr/sidata\\_report/seoul\\_keywords\\_201912.html](https://data.si.re.kr/sidata_report/seoul_keywords_201912.html).
- 13)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14)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15) 안수미 · 이기영 · 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 16) 유소이 · 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 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17) 윤성호(2020).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415-432.
- 18)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19) 이은희 · 김경자 · 이성림 · 유현정 · 차경옥 · 이영애 · 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 20) 이수연 · 김인순 · 김현정 · 김민정(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
- 21) 이승미 ·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5.
- 22) 이현아 · 김선미 · 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회지*, 30(2), 231-261.
- 23) 이현아(2021).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47-61. DOI : 10.22626/jkfma.2021.25.1.004.
- 24) 이해정 · 유규창(2013).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 *노동정책연구*, 13(4), 1-31. DOI : 10.22914/jlp.2013.13.4.001.
- 25)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2), 29-54.
- 26) 조미라 · 윤수경(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

- 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 5-30.
- 27) 중앙일보(2010.4.12). 나는 없고 가족만 있는 베이비붐 세대.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05825#home>.
- 28) 중앙일보(2019.5.5). 밀레니얼 가족이 사는 법 ①...음식, 해 먹지 않고 사 먹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9000#home>.
- 29)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30) 통계청(2010a).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통계청 보도자료.
- 31) 통계청(2010b).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계청 보도자료.
- 32)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 33) 허석재(2015). 세대연구의 경향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5(1), 21-47.
- 34)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35) 허수연(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36) LG경제연구원(2016). 밀레니얼 세대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방식. LG Business Insight.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9503>.
- 37)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38) Bryant, W. K. & Zick, C. D.(2006).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9)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40) Crompton, R.(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8(3), 266-291.

- 투 고 일 : 2021년 09월 15일
- 심 사 일 : 2021년 07월 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21년 11월 20일